

#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유지형<sup>1</sup>, 이주희<sup>2</sup>, 박순희<sup>3\*</sup>

<sup>1</sup>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석사과정, <sup>2</sup>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sup>3</sup>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ion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Yu Jeehyoung<sup>1</sup>, Lee Joohee<sup>2</sup>, Park Sunhee<sup>3\*</sup>

<sup>1</sup>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ongshin university, Master's Course

<sup>2</sup>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Professor

<sup>3</sup>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G시와 N시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대학 내에 두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외국인 유학생, 성격강점, 대학생활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매개효과

**Abstract** In this study, we looked at whether the character strength of foreign students affects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and tried to figure out whether cultural adaptation stress has mediating effect. To this end, we set up a research model based on prior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f 263 foreign students belonging to G City and N City, and analyzed the data using the spss statistics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racter strength of foreign students wa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and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reduces cultural stress and to have a professional counselor in the university who can continuously consult international students.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University life adaptation, Culture adaptation stress,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Hee(sunny681127@hanmail.net)

Received August 17,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22,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 1. 서론

세계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고, 세계화에 발맞춰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 체육, 교육 등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1]. 최근 K-POP 혹은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3년에 12,314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04,262명으로 약 8.4배가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41,98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3].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국가는 해외 우수 인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4,5].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6,7].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 학사관리 및 지원의 부족,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4,8-11]. 이러한 어려움은 유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향수병 및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학업을 어렵게 한다[6,12]. 이에 많은 유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10,13].

한편, 대학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6,14]. 특히 대학생활적응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칙과 풍습 그리고 문화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12].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성격강점, 언어능력, 문화적응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진로장벽, 외로움, 지각된 차별감, 정서조절 양식 등을 주요한 적응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11,15-18]. 최근에는 대학생활에 보다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심리학이 정신장애와 부정적인 정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면 인간의 긍정적 성품은 현대 심리학의 주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10].

특히 긍정심리학의 핵심인 성격강점은 누구든지 가지

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개성과 독특성을 잘 나타내주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생각과 정서, 행동의 긍정적 특성을 의미한다[19].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내적이고 정서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19]. 신정원 외[17]는 성격강점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성격강점 관련된 연구들은 캐나다와 미국 등 유학생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15].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을 연구한 논문들은 김주혜[10]와 유찬우[15], 양진숙과 차수정[2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타국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깊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반응, 낯선 문화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내적 어려움과 새로운 관습 및 사회적 규범의 생소함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21]. 즉,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개개인들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한다[22,23].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불안, 우울, 두려움, 소외감, 정체성 혼란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며, 체류하고 있는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24].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 소외감 등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과 정체감 혼란 등의 스트레스를 수반한다[16].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6,16,25-27].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을 낮추는 주요한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외국인 유학생이란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자를 뜻한다. 그들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과 본국 사이에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문화적으로 낯설고 차별적인 지위 혹은 경계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28,29].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초기에 미숙한 한국어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토론, 발표 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외에도 진로 및 진학, 기숙사, 학교시설, 교육정보, 교육적 지원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0].

또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성인기와 유사한 생활양식을 가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후 성인기의 적응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31].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잘 충족하는 사람이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다[32].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같은 상황과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33], 개인 내적인 힘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하는 부분은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19].

개인 내적인 힘인 긍정적인 강점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어 일의 수행과 결과가 좋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34]. 따라서 성격강점은 안정된 개인의 속성으로 자율성과 향상성을 유지하고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내적 특성이다[35].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누구나 성격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일과 사랑, 양육, 여가, 대인관계 등 폭넓은 영역에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36,37]. 즉 성격강점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내재적 자원으로서 이를 발견하고 강화하면 자존감 및 안녕감이 향상되고[38,39],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질 수 있으며[40],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여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다[17]. 김종운과 김미정[41]의 연구에서도 인간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성격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발달시키면,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및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2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성격강점은 생활 및 직무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등을 낮추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능과 대처능력을 촉진시키고 정서조절에 도움을 준다[17,42]. 유미옥[43]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성격강점이 매우 결핍된 사람에서는 부적응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고 하였다.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 특히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인 죄책감과 향수병이 심해질수록 우울감이 높다[44]. 그러나 성격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심리치료는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5], 성격강점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46,47].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을 잘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보다 낮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4,16,48]. 박선영[49]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학생활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인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 충격, 죄책감 등이 낮은 유학생들이 사회적 적응이나 개인적 정서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50].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중인 학교의 환경에 잘 적응했을 때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문제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51]. 이렇게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11,26,52-54].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및 대학생활 적응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11]. 한국 사회가 다양한 민족과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 및 다양한 민족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다[55]. 선행연구들[55,56]에서는 한국사회가 미국이나 호주 등 서구의 이주 국가들에 비해 짧은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단일민족의식이 한국인의 의식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 외국인의 문화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은 대학생활을 힘들게 한다[53].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조사의 대상은 A시와 B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2017년 9월 한 달 동안 30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일관) 응답 40부를 제외한 263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109명(41.4%), 여학생은 154명(58.6%)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71명(27%), 2학년이 42명(16%), 3학년이 31명(11.8%), 4학년이 28명(10.6%), 입학 전 학생이 23명(8.7%)이며, 교환학생은 68명(25.9%)이었다.

국적은 중국이 131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56명(21.3%)이 많았다.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이 41명(15.6%), 말레이시아가 9명(3.4%), 일본이 8명(3.0%), 기타 17명(6.5%)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기간은 6개월 미만인 14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20.9%), 1년 미만(9.5%), 3년 미만(8.4%), 5년 이상(4.2%), 4년 미만(3.0%) 순으로 많았다. 다음의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A demographic variable (N=263)

	Variable	N	percentage(%)
gender	남	109	41.4
	여	154	58.6
grade	first	71	27.0
	second	42	16.0
	third	31	11.8
	fourth	28	10.6
	Before enrollment	23	8.7
	Exchange student	68	25.9
Nationality	China	131	49.8
	Vietnam	56	21.3
	Uzbekistan	42	16
	Malaysia	9	3.4
	Japan	8	3.0
	Etc	17	6.5
stay in Korea	~6month under	142	54
	~1year under	25	9.5
	~2year under	55	20.9
	~3year under	22	8.4
	~4year under	8	3.0
	~5year More than	11	4.2

#### 3.2 측정도구

##### 3.2.1 성격강점 척도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Peterson과 Seligman[3]이 개발한 성격강점 척도(Values in Action-Inventory of Strengths; VIS-IS)를 김주혜[10]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고, 연구자가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어 강사와 베트남 원어민 강사에게 중국어, 베트남어를 번안을 의뢰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격강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즉 24가지의 긍정적인 성격적 강점 즉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용서,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사랑, 친절, 사회성, 겸손, 신중함, 감사, 희망, 유머, 영성, 통찰, 용감함, 인내, 진실성, 활력, 자기조절, 감상력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값은 .66이다.

##### 3.2.2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i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SIS(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승중[57]이 번안하고 김향화[26]의 영어와 한국어 척도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중국어, 베트남어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두려움, 문화적 충격, 미워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났다.

##### 3.2.3 대학생활 적응 척도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58]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현진원[59]이 번안하여 사용한 영어와 한국어 척도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중국어, 베트남어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적 적응, 사회적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생활환경적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9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1이다.

###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신뢰도와 정규성을 확인하고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 및 Sobel-test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성격강점,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격강점,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다음 Table 2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격강점 평균은 159.65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51.44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388.51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의 정규성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왜도는 -.06~.64로, 첨도는 -.16~.45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

Table 2. the average of the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N=263)

	M	SD	Skewness		Kurtosis	
			M	SD	M	SD
character strengths	159.65	11.40	.13	.15	.03	.30
culture adaptation stress	51.44	12.34	.14	.15	-.06	.30
university life adaptation	388.51	53.37	.42	.15	-.16	.30

### 4.2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 대학생활 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성격강점,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 Table 3에 제시하

였다. 성격강점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 $r=-.184, p<.01$ )를 보였다. 또한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421, p<.001$ )를 보였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전체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r=-.431, p<.001$ )를 보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공차(Tolerance)값이 .96~1로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03~1.09로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3.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ers (N=263)

	character strengths	culture adaptation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character strengths	-		
culture adaptation stress	-.18**	-	
university life adaptation	.42**	-.43**	-

\* $p<.05$ , \*\* $p<.01$

### 4.3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Baron과 Kenny[60]의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제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성격강점이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 2단계는 독립변인인 성격강점이 매개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제 3단계에서는 성격강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단계 회귀 방정식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성격강점이 종속변인인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beta=.38, p<.001$ ). 제 2단계 회귀식에서는 독립 변인인 성격강점이 매개 변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beta = -.14, p < .05$ ). 제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성격강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함께 투입할 때 성격강점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33, p < .001$ ), 1단계보다 회귀계수가 감소하였다( $\beta = .38 \rightarrow \beta = .33$ ). 즉 제1단계 회귀 방정식( $\beta = .38, p < .001$ )보다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beta = .33, p < .001$ ) 매개효과 검증 절차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Fig. 1과 같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N=263)

Route		$\beta$	t	$R^2$	F	
1 step	grade	university life adaptation	-.19*	-2.74	.33	44.79***
	Nationality	university life adaptation	.23**	3.38		
	character strengths	university life adaptation	.38***	7.28		
2 step	grade	culture adaptation stress	.06	.77	.11	11.77**
	Nationality	culture adaptation stress	.14	1.81		
	character strengths	culture adaptation stress	-.14*	-2.23		
3 step	grade	university life adaptation	-.17**	-2.67	.45	13.79***
	Nationality	university life adaptation	.28***	4.50		
	character strengths	university life adaptation	.33***	6.92		
	culture adaptation stress	university life adaptation	-.37***	-7.48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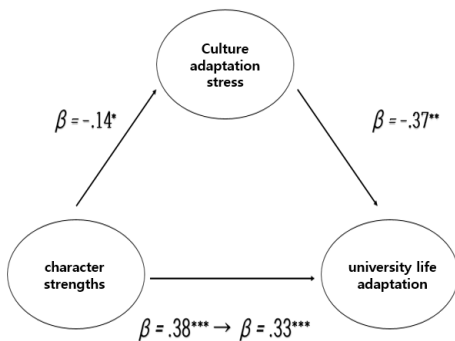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ion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Character strength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성격강점의  $\beta$  값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Sobel test 결과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정하는데 매개 모형에서의 Z값이 2.15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격강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 문화적응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과 각각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강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 [15,17,19,41]과 유사하며, 성격강점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연구[10]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4,9,23,53]들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인 성격강점과 부정적인 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성격강점을 가지고 있어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50,52]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강점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은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이다. 성격강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적자원으로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긍정

적인 정서를 이끌어내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성격강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준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의 성격강점을 발굴하고 향상시켜주는 성격강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격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격강점 또한 대체로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15]. 또한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강점이 다르고, 이를 발굴하여 강화한다고 하여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거나 감소하게 된다. 이는 많은 성격강점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점과도 일치한다[61-63].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개인의 강점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의 성격강점의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저하되고[64], 우울감이 증가되어[23] 주관적인 행복감이 떨어진 다[65].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성격강점을 떨어뜨린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의 따뜻한 관심과 태도가 필요하며,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성격강점이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환경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를 실시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질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문화적응스트레스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경로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외에 경제적 문제나 가족과의 관계, 언어적 어려움 등의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사 및

분석 과정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 A. Kim. (2010). Adaptation of Chinese students to college life in Korea. *Journal of Student Life Research*, 17, 57-68.
- [2] Ministry of Education. (2016). *Foreign student statistics*.
- [3] Ministry of Justice. (2017). *Status of registered foreigners by region*.
- [4] G. S. Kim & J. I. Hwang.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China.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9), 1-25.
- [5] S. H. Back. (2013).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Korean University Campus lif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6] H. Z. Yan. (2014).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7] J. M. Lee. (200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the Adaptation in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8] H. K. Um. (2003). *A Study on Korean Culture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Based on five universities in Seoul*. Major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 [9] J. I. Hwang. (2008).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justment Stres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 [10] J. H. Kim. (2013). *Character strengths and Acculturation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 [11] Y. L. Shin. (2014). *Effects of Linguistic Competency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justment Stres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2] I. S. Na.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 Stress and Life Stress among Foreign Students. *Korea Nonprofit Research* 15(2), 159-197.
- [13] H. J. M. (2015).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with Campus Life*.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14] C. I. No. (2002). Focusing on Relationships among Stress, Perception of University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Service Needs = A Study on University Adjustment among Returnees of Overseas-Experienced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3, 87-120.
- [15] C. W. Yoo. (2011). Character strengths, and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1), 365-365.
- [16] C. Jie. (2010). *The Influence of Loneliness and Acculturative Stress on Chinese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epartment of Adolescent Graduate School Daegu Hanny University Kyoungbuk Korea.
- [17] J. W. Shin, H. J. Jang & M. H. Hyun. (2015). Stress Coping and Emotional Regulation Mediate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3), 109-118.
- [18] M. Undra. (2016). *Impact Acculturation Stress of the Mongolian Students on College lif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 [19] H. J. Seo. (2016).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A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the Post-traumatic Growth*.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 [20] J. S. Yang & S. J. Cha. (2016).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education program on character strengths and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Research of Dance education*, 27(3), 173-193.
- [21] Y. I. Kang. (2013). *Relationships between the Attach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to mothers and theirs adjustm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 [22] G. C. Berry. (1997). On the use of stretched-exponential functions for both linear viscoelastic creep and stress relaxation. *Rheologica Acta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heology"*, 36(3), 320-329.
- [23] D. B. Ju & H. H. Kim. (2013). The Influence of Foreigner Student's Cultural Adjustment Stres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3(1), 123-145.
- [24] H. J. Kim & E. J. Son. (2011).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Optimism on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9(3), 3-12.
- [25] E. J. Jo. (2010).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ess from adapting culture and university life of Chinese student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partment of Children & Adolescent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Jeonju University.
- [26] H. H. Kim. (2013).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College-life Adap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27] J. S. Baik. (2011). Variable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3), 119-131.
- [28] J. S. Baik. (2011). Variable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3), 119-131.
- [29] S. N. Kim. (200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Adaptation by Foreig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29-46.
- [30] H. L. Yu & B. Y. Kim. (2016).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ccultural-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3), 55-83.
- [31] Y. J. Lee, H. Y. Min & Y. M. Lee.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Types And College 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5(4), 125-144.
- [32] D. W. Hahn, K. K. Chon & C. H. Lee. (1991). Changes And Adjustment In Campus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1), 259-266.
- [33] S. J. Yune, K. H. Park, W. J. Chung & S. Y. Lee. (2011). The Effects of Attribution Tendencies, Academic Stress, and Coping Efficacy on Academic Adjustment of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3(3), 167-174.
- [34] C. Peterson & M. E. P. Seligman. (2009).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eoul: Korea Psychological Counseling Institute.
- [35] G. S. Lee, S. J. Do & H. A. Song. (2016).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 betwee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3), 36-73.
- [36] C. Peterson. (2010).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7] M. E. P. Seligman.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38] D. R. Won. (2011). The Effects of Character Strengths on Well-being and Adaptive Coping Style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1), 151-167.
- [39] M. H. Par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Strength and Spiritual Well-Being: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517-1533.
- [40] K. U. Kim, Y. K. Yoon, S. M. Kwon & S. S. Ha. (2010). Character Strength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erceived Happiness and Life Adjustment of Cadets under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 22(1), 233-248.
- [41] J. W. Kim & M. J.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Character-Strengths and Self-Efficacy i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1035-1052.
- [42] S. S. Ha. (2015). The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 character strength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maladjustment. *A study of pedagogy*, 22(6), 1-32.
- [43] M. O. Yu. (2017).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haracter Strength on Perceived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2), 168-176.
- [44] M. K. Jin & Y. J. Cho. (2011).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4), 77-89.
- [45] M. H. Park & E. H. Kim. (2012). The Effects of the Character Strengths on Depression and Anxiety betwee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Non Christian Ones. *Gospel and Counseling*, 19, 125-156.
- [46] G. S. Gong & S. S. Ha. (2015). The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job stress on subjective happiness : moderation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1(1), 43-6.
- [47] G. U. Jung & S. G. Seo. (2016). Moderating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o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9(1), 53-73.
- [48] Z. S. Wang. (2013). *The Influence of Leisure Participation on Acculturative Stress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Department of Sport For All Studie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49] S. Y. Park. (1993). *Effects of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behavior on adaptational status. The focus on university student's stress experiences*.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50] Y. S. Lee. (2015).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Depending on Their Acculturation Typ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51] H. J. Kwon. (2007).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52] C. C. Lee, I. S. Oh & S. Y. Lee. (2016). The Relations of Acculturation Type,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Adapt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1), 101-120.
- [53] S. Y. Yoon. (2015).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Focused on Foreign Students Majoring Tourism at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5(2), 177-197.
- [54] W. Ke. (2016). *A study on college adjust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Dong-Eui University.
- [55] S. H. Park & J. H. Yu. (2017).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 [56] S. H. Park & S. A. Kim. (2012). Cultural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Awareness in Ear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7), 27-50.
- [57] S. J. Lee. (1995).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58] R. W.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59] J. W. Hyun. (1992).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60]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61] G. S. Jeon. (2016). *A Study on the Effect and Development of Character Strengths focused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62] H. M. Kim. (2016). *The Relation between Signature Strengths and Well-being and the Effect of Signature Strengths Use Based Intervention on Well-bei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63] M. S. Sim, J. S. Park & H. C. Lim. (2017).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Enhancement.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8(3), 269-283.
- [64] J. A. Kim & I. K. Kim. (2011).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52-61.
- [65] C. C. Lee, I. S. Oh & S. Y. Lee. (2016). The Relations of Acculturation Type, Acculturation Stres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ollege Adapt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1), 101-120.

유 지 형(Yu, Jee Hyoung) [학생회원]



- 2018년 2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심리학석사)
- 2018년 8월 ~ 현재 :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 석사과정(문학석사)
- 관심분야 : 상담, 다문화, 한국어교육

· E-Mail : jh\_land@naver.com

이 주 희(Lee, Joo Hee) [정회원]



- 1999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교육학박사)
- 2018년 8월 ~ 현재: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 관심분야 : 상담, 교육심학, 다문화, 외국인 유학생

· E-Mail : maearee@hotmail.co.kr

박 순 희(Park, Sun Hee) [정회원]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사회복지학박사)
- 2018년 8월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가족상담 및 복지, 외국인 유학생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